

핀란드, 독일의 유아교육정책 및 체제 비교: 유아 사교육 대응을 위한 시사점

이지윤 부연구위원

1. 연구 배경

- 교육 철학과 문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유아교육 정책은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서적 안정, 놀이 중심 교육, 그리고 과도한 학습에 대한 규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또한 다양한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교육의 형평성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임.
- 국내에서는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공교육은 이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¹⁾.
 - 교육부가 전국 6세 이하 영유아 가구 부모 13,241명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5세 이상의 아동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2세 미만 영유아의 참여율도 2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²⁾.
 - 사교육에 주당 참여하는 시간은 5.6시간이었고,
- 2세 이하 아동은 1.8시간, 5세 아동은 7.8시간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³⁾.
- 이 같은 과도한 사교육 경쟁이 아동 복지와 인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학업 수행 능력에 미미한 효과를 미치며,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⁴⁾.
- 대부분 유아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각국의 교육 시스템과 철학에 따라 공교육의 특징이 일부 다르게 나타남.
 - 공교육은 각국의 문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교육 시장의 규모와 양상도 차별화되므로 각국의 교육 관련 법규와 실제 교육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핀란드와 독일은 유아교육의 질, 사교육 현황, 정책적 접근 방식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1) 김은영, 구자연, 김지원, 김혜진, 김재철, 김종근, 조숙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24).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 연구소.

2) 교육부(2024. 3월 14일).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별첨2, 보도자료]. 교육부 조간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8692>

3) 권수진(2025. 3월 13일). 기자회 카고 학원으로... 영유아 사교육비 월 33만원. 대경일보.

- 핀란드는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의 질과 접근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임. 특히, 놀이 중심의 교육 접근법과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강조함.
- 독일은 유아교육의 법적 기반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주목해야하는 국가임. 특히, 학문적 교육과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에 유럽 교육의 주요한 특징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핀란드와 독일의 교육 시스템과 영유아기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사교육 양상을 조사하였음.
- 본 연구는 핀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국내 유아교육에서의 공교육 방향성과 사교육 대응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유아교육정책의 주요 특성과 유아 사교육 현황

가. 핀란드

- 핀란드는 꾸준히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교육 시스템의 모범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는 국가이며, 선발과 경쟁이 교육의 중심이 되는 한국과는 달리 학생들 간의 성적 평균 차이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⁵⁾.
 -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고 교육의 평등성과 접근성을 강조하여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교육 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음.
-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교육을 강조하는 핀란드의 공교육은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 시스템 덕분에 대부분 학생들은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게 되고 사교육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됨.

1) 핀란드의 유아교육 관련 법규

- 핀란드의 영유아 교육 관련 규정은 연령대와 목적에 따라 0~5세를 위한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NCCECEC, 2022⁶⁾)와 6세를 위한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Pre-primary Education(NCCPE, 2014⁷⁾)로 나누어지며, 둘은 연속적인 교육 단계이지만, 각각의 초점과 구조에 차이가 있음.

- NCCECEC는 영유아들의 전인적 발달, 성장, 그리고 배움을 보호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하기 위함이며, NCCPE는 수준 높은 통합교육을 초등교육 전에 시행하여 교육의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NCCECEC에서는 놀이 중심이며 아동의 주도적 활동 강조하고 있으나, NCCPE에서는 초등학교 준비에 목적으로 두고 여전히 놀이 중심이지만 기초 학습 기술, 자기 조절 능력, 협업 능력 등 구조화된 학습을 포함하고 있음.
- NCCECEC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Competences)을 특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5) 이윤미(2011). 북유럽에서의 교육평가와 선별: 한국교육에 시사점. *교육연구와 실천*, 77, 133~157.

6)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22).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22*.

7)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14).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Pre-Primary Education 2014*

〈표 1〉 핀란드의 영유아교육 관련 규정 비교

항목	NCCEC (2022)	NCCPE (2014)
대상 연령	0~5세	6세
법적 의무성	선택적	의무 (2015년 이후)
교육 성격	전인적 발달 중심 (유연함)	학교 준비 중심 (구조적)
주요 내용	보육, 교육, 돌봄 통합 (Educare)	초기 학습기술 개발 중심
교육 형태	개별화 놀이 중심, 일상생활 연계	프로젝트 학습, 소그룹 활동 등

자료: 1.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22).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22.
2.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16).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Pre-Primary Education 2014.

기술이 결합하여 사용하는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es)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횡단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사고하기와 배우는 방법을 배우기(T1, Thinking and learning to learn), 문화 역량, 상호작용 및 자기 표현(T2, Cultural competence, interaction and self-expression), 자기돌봄과 일상생활 영위(T3, Taking care of oneself and managing daily life), 다중 문해력(T4, Multi-literacy), 디지털 역량(T5, Digital competence), 공동체 참여 역량 (T6,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등을 제시하고 있음.

2) 핀란드 유아교육 과정의 특징

- 영유아 교육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강조되는 것이 일상을 관리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인데, NCCEC에서는 매일 옷을 갈아입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영유아가 상호작용 기술, 독립성, 그리고 자기돌봄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표2 참조).
- 모든 영유아가 하루에 두 번 스스로 옷 갈아입기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영유아의 대소근

육 운동 능력과 사회·정서적 발달을 관찰·평가하며, 옷의 종류별로 글자와 그림으로 설명을 적어두어 영유아가 글자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돋기도 함⁸⁾.

- 옷 갈아입기와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횡단적 역량 강화에 중요하며, 교사는 이를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임⁹⁾.

■ 횡단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다중 문해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유아기에 문자를 지도하는 것은 지양함.

- 다중 문해력 향상에 있어서 전통적인 문자 중심의 문해력이 아니라 구어, 문어, 그리고 청각-시각적 문자 등을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배우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이를 통해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매체 사용 능력뿐만 아니라 문자에 대한 친숙함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됨.
- 또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언어를 일찍 접하는 것이 이후 문자 언어 습득에 대한 자신감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적 소

8) Rutanen, N., Raittila, R., & Vuorisalo, M. (2019). Clothes: Clothes and clothing practices in Finnish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P. Rautino, & E. Stenvall (Eds.). Social, material and political constructs of arctic childhoods: An everyday life perspective (pp. 65–84). Children: Global Posthumanist Perspectives and Materialist Theories, 1. Springer.

9) Hatcher, B., & Squibb, B. (2011). Going outside in winter: A qualitative study of preschool dressing routine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8, 339–347.

〈표 2〉 핀란드 유아교육 기관의 일과표 예시

시간	활동	내용 및 교육적 요소
08:00	등원 및 자유놀이	실내 블록 놀이, 소 근육 활동, 책 읽기 - 자기 주도성, 사회성, 협력성
08:30	아침 식사 및 옷 갈아입기 (1차)	자조 기술 발달 - 대소근육, 자기조절, 독립성
09:00	바깥 놀이	눈썰매, 모래놀이, 자연 탐색, 안내된 놀이 활동 - 신체발달, 창의성, 또래 상호작용
12:00	옷 갈아입기 (2차) 및 점심 준비	실내복 갈아입기와 손 씻기, 자율 정돈 - 책임감, 일상 관리 능력
13:00	다중 문해력 활동	그림책 읽기, 디지털 그림책 상호작용, 그림책 속 인물 역할 놀이 다중 문해력
13:30	휴식 또는 낮잠	감정 조절, 자율적 안정
14:30	목공활동 또는 음악/미술	나무 깎기, 간단한 못 박기, 작품 만들기 - 수공 능력, 수학적 사고(측정/비율), 규칙 인식
15:30	간식 및 자유놀이	또래 교류, 교사와의 이야기 시간
16:00	귀가 준비 및 옷 갈아입기 (3차)	날씨에 따라 외출복 착용 지도, 자조기술 반복
17:00	개별 귀가 또는 연장 보육	가정과의 연계 활동 소개

자료: 1. Rutanen, N., Raittila, R., & Vuorisalo, M. (2019). Clothes: Clothes and clothing practices in Finnish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P. Rautino, & E. Stenvall (Eds.). Social, material and political constructs of arctic childhoods: An everyday life perspective (pp. 65-84). Children: Global Posthumanist Perspectives and Materialist Theories, 1. Springer.
2.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22).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22*.

통 양식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함¹⁰⁾.

- NCCECEC와 NCCPE는 공통적으로 영유아에게 충분한 놀이 시간을 제공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바깥 놀이를 중요시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하루 3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바깥 놀이를 중시하는 이유는 영유아들이 교사가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 영유아들이 자신의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놀이를 창조하는 등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임¹¹⁾.
 - 교사들도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놀이 중심의

접근법을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음¹²⁾.

- 이외에도 유아교육,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기관 모두에서 목공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실제 현장에서 목공을 활용한 놀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목공 교육에서는 나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크기를 선택하고 자르는 과정에서 수학적 창의성과 독창성이 개발되며 규칙을 지키며 함께 놀이를 하면서 안전 교육과 사회성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10)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22).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22*.

11) 나귀옥(2018). 영국 및 핀란드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실외놀이 환경 및 운영, 교원의 관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9), 729-755.

12) Kangas, J., Harju-Luukkainen, H., Brotherus, A., Kuusisto, A., & Gearon, L. (2019). Playing to learn in Finland: Early childhood curricular and operational contexts. In. S. Garvis & S. Phillipson, S (Eds.), *Policific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outledge.

〈표 3〉 독일의 유아교육 관련 법규 비교

구분	Kinderförderungsgesetz (아동지원법)	Bildungspläne (유아교육법)
수준	연방 수준	주(州) 수준
제정 연도	2008년	각 주마다 다름
목적	1세 이상 아동 보육·교육 권리 보장	교육 운영 및 질 관리
법적 성격	기본 틀 제공	구체적 실행 규정
주요 내용	보육·교육 시설 및 가정 양육에 대한 법적 권리 도입 부모의 보육 선택권 확대 연방·주·지자체 간 재정 분담	유아교육의 질적 기준 규정 (교사 대 아동 비율, 자격 요건 등) 교육비 관련 규정 시설 운영 기준 및 감독 교육 시간 및 내용

자료: Bundesministerium der Justiz(2008). Kinderförderungsgesetz (KiföG). https://www.bmji.de/SharedDocs/Publikationen/DE/Fachpublikationen/Handbuch_der_Rechtsformlichkeit.html. (인출일: 2025. 4. 26)

Völkerling, A. (2023). *Bildungspläne der Bundesländer für die frühe Bildung in Kindertageseinrichtungen*. Deutscher Bildungsserver. (인출일: 2025. 7. 21)

3) 핀란드의 유아 사교육 현황

- 핀란드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낮은 나라 중 하나임.
 - 핀란드 2~5세아 기관 이용 외 언어, 수학, 과학 등에 대한 학습 시간은 주당 18분에 불과 함¹³⁾. 이는 학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제와 시험을 거의 시행하지 않고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에 따른 것임.
- 교사의 높은 전문성과 교사와 교육의 자율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유치원 교사는 교육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보육 교사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3년제 직업학교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또한, 교원 편성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해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결국, 모든 학생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도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임.
 - 이에 더하여 상급학교 진학 시 단편적인 문제풀이 기술이 아니라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사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¹⁴⁾.

나. 독일

1) 독일의 유아교육 관련 법규

- 독일은 분권화된 구조로 교육에 관한 권한이 주정부 (Bundesländer)에 있어 통일된 국가 교육법이 존재하지 않음.
 - 각 주가 자체 교육법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학교 유형, 수업시간, 교육과정, 평가방식, 교사채용 기준을 규정한 학교법

13) 김은영(2018).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영유아의 하루일과 진단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14) Seppanen, Pasu, & Kosunen (2023). Pupil Selection and Enrolment in Comprehensive Schools in Urban Finland. In M. Thrupp, P. Seppanen, J. Kauko, & S. Kosunen (Eds.), *Finland's Famous Education System: Unvarnished Insights into Finnish Schooling* (pp. 193–210).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981-19-8241-5_12

〈표 4〉 독일의 아동교육 기관 비교

연령대	기관 명칭	역할
0~3세	Kinderkrippe (킨더크리페)	영유아를 위한 보육기관
3~6세	Kindergarten (킨더가르텐)	유아 교육과 사회성 발달 중심의 교육기관 (유치원)
6~10세	Grundschule (그룬트슐레)	초등학교

자료: OECD(2020). Education policy outlook in Germany.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education-policy-outlook-in-germany_47b795b1-en.html. (인출일: 2025. 5. 5)

(Schulgesetz), 대학의 자율성, 등록금, 학위 체계 등을 규정한 대학법 (Hochschulgesetz), 그리고 보육 시설 운영기준과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Bildungspläne) 등을 제정하고 있음.

- 독일 유아교육은 주 정부의 관할 아래 있으며, 각 주는 유아교육법을 통해 교육적 목표를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바이에른 주의 교육목적 가운데 제 6항에서는 아동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발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유아에게 놀이

와 탐구를 통해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유아교육 기관은 아동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교육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제 9항).

- 교육 정책과 교육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는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을 통해 이루어짐.

〈표 5〉 독일 유아교육 기관의 일과표 예시

	Kinderkrippe (킨더크리페)	Kindergarten (킨더가르텐)
07:30	등원, 자유 놀이, 감각활동	등원, 자유 놀이
09:00	아침 식사, 아침 모임	아침 모임 (morning circle)
09:30	교육 활동	아침 식사
10:00		교육 활동, 프로젝트 활동
10:30	야외 놀이 시간 (정원 활동)	야외 놀이 시간 (정원 활동)
11:00		
11:30	점심 식사	점심 식사
12:00	낮잠 시간, 위생교육	
12:45		낮잠 시간, 정신집중 활동 (연령 높은 아동 대상), 테이블 게임/교육 활동
14:00	이야기 시간, 책 읽기	이야기 시간, 게임, 노래
14:30	간식 시간	간식 시간
15:00	자유 놀이, 정원 활동, 하원 준비	자유 놀이, 정원 활동, 하원 준비
17:00	종료	종료

자료: Kitabunt. (n.d.). Sunrise Kita. <https://kitabunt.de/sunrise-kita/> (인출일: 2025. 5. 5)

- 이 전문가 집단은 교육 정책 입안자와 일반 시민이 교육 체계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함¹⁵⁾.
-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이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고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교육의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하며,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2) 독일 유아교육 과정의 특징

-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독일의 유아교육 기관(Kinderkrippe)은 영유아들이 또래 그리고 보육자와의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
 - 독일은 영유아들 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중요시하여, 다른 유아 및 성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둠.
 - 의사소통 및 언어 능력은 교사와의 상호작용, 놀이, 노래 부르기, 그림책 보기 등 다양한 교수 방법과 도구를 통해 향상됨.
 - 신체 활동, 야외 장소 방문, 노래와 움직임을 포함한 놀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체 발달 또한 중요시되는데, 이는 유아의 신체 인식, 자기 수용, 자신감, 집중력 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기관(Kindergarten)은 놀이와 학습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적이면서도 유연한 환경을 제공함.
 - 교육을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핵심 기술은

- 사회성 발달이며, 미술, 공예, 음악, 야외 놀이, 이야기 듣기, 기본 학습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짐.
- 아동이 초등학교(Grundschule)에 입학하기 전까지 편안하고 놀이 중심의 환경 안에서 수학, 읽기 및 기타 과목의 기초 개념을 흥미롭고 상호작용적인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됨.

3) 독일의 유아 사교육 현황

- 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대학 진학률과 사교육 의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기본 교육(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중등 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은 세 가지 주요 경로(일반 고등학교, 직업학교, 실업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됨¹⁶⁾.
 -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맞춤형 경로를 제공하여,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 독일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동시에 기업에서 실습을 통해 실제 경험을 쌓는 방식의 ‘듀얼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직업 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음¹⁷⁾.
 - 이는 학생들이 졸업 후 노동 시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직업 교육의 활성화로 인해 대학 진학률이 낮아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음.
- 독일은 대학 입시 경쟁이 한국보다 덜 치열하고, 직업

15)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22). *Bildung in Deutschland 2022: Ein indikatorengestützter Bericht mit einer Analyse zum Bildungspersonal*. Bielefeld: wbv Media. <https://www.bildungsbericht.de/de/bildungsberichte-seit-2006/bildungsbericht-2022/pdf-bildungsbericht-2022/buildung-in-deutschland-2022-barrierefrei.pdf>

16) 김운삼(2008). 유럽의 교육제도: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5(1), 67-86.

17) 이호근.(2017).독일의 청년실업과 고용대책- 직업교육훈련 '이원체제(dual system)'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4(3), 85-115.

교육을 통한 안정적 취업 기회가 보장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보편적으로 낮음¹⁸⁾.

-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대체로 55% 이하로, 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과 연계된 직업 교육을 통해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임¹⁹⁾.
 - 독일 기업들은 직업학교 출신을 적극 채용하며, 이는 대학 중심의 경쟁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옴²⁰⁾.
 - 독일은 모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적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으며, 학생들은 직업 교육이나 기술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독일에서도 최근 학습 사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해 중고등학교 학생의 약 20%가 개인 과외를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음²¹⁾.
- 그러나 영유아기에는 아직 이러한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 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도 선행학습 중심인 한국과는 다르게 보충 학습의 개념이 더 보편적임²²⁾.
 -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보충 목적의 개인 과외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²³⁾, 보충 학습이 성적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개인 과외를 받지 않는 동급생들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음²⁴⁾.

18) 정다은(2023). 독일 청년고용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5, 74-84.

19) 독일한국교육원(2022. 10월 28일). 독일의 고등교육재정. [https://www.keid.de/german-education-info/5e67250d-86f9-4325-9193-9983f6cf2801#:~:text=독일의%20고등교육%20기관%20및%20이수자%20일반%20현황&text=석사과정만%20있었던%202005,수준을%20유지하고%20있다.\(인출일: 2025.7.18.\)](https://www.keid.de/german-education-info/5e67250d-86f9-4325-9193-9983f6cf2801#:~:text=독일의%20고등교육%20기관%20및%20이수자%20일반%20현황&text=석사과정만%20있었던%202005,수준을%20유지하고%20있다.(인출일: 2025.7.18.))

20) 강경종(2016. 10월). 직업교육의 선진국 독일·스위스에서 배운다. 행복한 교육. https://ha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mg.d?nttld=6580&bbsId=BBSMSTR_000000000191. (인출일: 2025. 7. 18)

21) Hille, A., Spieß, C. K., & Staneva, M. (2016). More and more students, especially those from middle-income households, are using private tutoring. DIW Economic Bulletin, 6(6), 63-71.

22) 정수정(2014. 3월 24일). 선행교육이 없는 나라 독일. 독일통신원.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ExternalForm.do?acNum0=16594#:~:text=독일에서%20선행학습이%20이루어지지%20않는%20원인은%20독일%20교육제도,교육과정%2C%20대학입시제도는%20학생들이%20자신의%20작성에%20따른%20교육.> (인출일: 2025. 7. 17)

23) Guill, K. (2012). Nachhilfeunterricht: Individuelle, familiäre und schulische Prädiktoren. Waxmann.

24) Entrich, S. R., & Lauterbach, W. (2024). German-style shadow education: the role of private tutoring for school allocation in a highly stratified education system. Zeitschri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25) Lee, J. Y., Wright, C. A., Golinkoff, R. M., & Hirsh-Pasek, K. (2023). Another case of the theory to practice gap: South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5, 385-395.

3. 시사점

- 공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사교육의 필요성과 양상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학습을 위하여 다부문 정책 조정(multi-sectoral coordination) 및 유아 교육과 보육, 공사립의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긴요한 상황임.
- 핀란드와 독일의 교육 체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달과 놀이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3개국 모두 교육과정에서 놀이와 체험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 형평성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는 것을 공교육의 목표로 두고 있어 아동에게 놀이와 탐구 이외에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지 않음.
 - 반면 한국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조기교육 요구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놀이보다 학습 선행이 강조되는 환경이 존재함²⁵⁾.
 -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교육과정의 실행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짐.

■ 핀란드는 영유아기에 문자를 지도하기보다는 다중 문해력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으로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지원함.

- 놀이는 학습의 핵심 요소로 특히, 바깥 놀이를 하루 3시간 이상 권장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 한국도 하루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이 권장되지만, 날씨 또는 다른 환경적 여건에 따라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임.

■ 독일은 유아교육법을 통해 아동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발달을 존중하고 유아 사교육을 규제하고 있음.

- 독일의 사교육은 선행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과는 달리 보충학습의 형태로 보편화되어 있음.
- 이는 독일의 교육 체제가 학문적 교육과 직업 교육의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임.

■ 한국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여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유아기부터 조기 교육과 선행 학습에 집중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 영유아기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확대 및 강화하고, 표준 보육과정에 놀이 기반 교수 학습 활동 예시를 확대 반영해야 함.
- 특히 실외 놀이의 비중을 확대하고, 날씨나 공간 부족으로 실외 놀이가 제한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동시에 교사의 놀이 개입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형 연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교육 내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부모의 기대와 교사의 실행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놀이는 배움이다’, ‘놀이가 정답’과 같은 메시지를 중심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야 함.
- 주요 미디어, 온라인 콘텐츠, 육아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홍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하며, 캠페인은 유아기의 발달 특성과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역 간 공교육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임.

- 영유아에게 문자, 수리 등 선행 학습을 강요하는 사교육 광고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조기 학습의 부작용과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사교육 기관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기 학습 중심 사교육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발달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